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192호 - 창립 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4.3.17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치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사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테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교육전도사 : 전정민
사역자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에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 = 63 *p* Eb Ab Eb Bb Cm G Cm Bb Eb Ab Bb Eb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Ab Eb Bb Cm Ab Bb4 -3 Eb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성시 교독 <시편 51편>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이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성도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인도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성도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인도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성도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인도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성도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도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성도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인도자) 하나님이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도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참회 기도 <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산 다같이

(인도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았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사순절 특주 이건명 집사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과 듣기 <요한복음 17:20-26> 다같이

말씀 묵상 및 나눔 다같이

말씀 권면 전정민 전도사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D G C F C Dm Gm C₃ F

사랑의나눔있는곳에하나님께서계시도-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 감사 찬양 <감사하여라>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20-23 나는 그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증언 때문에 나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됨 속에서 성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24-26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영광, 곧 세상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알렸고 계속해서 알려 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 안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요17:20-26]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디 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디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감사찬양

감사하여라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3:0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00~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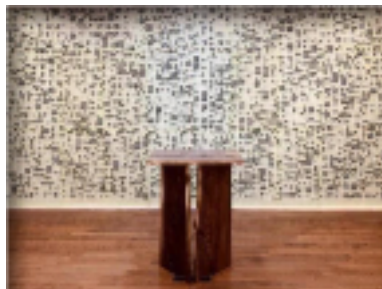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현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메모





공동체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구약 모세오경 성경통독

지난 3월4일(월)부터 시작된 **쉬운성경 <모세오경>** 성경통독이 온 성도의 참여가운데 잘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늘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이번주도 파이팅입니다!

전정민 전도사 말씀권면

오늘은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전정민 전도사님이 말씀을 권면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역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소명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십시오.

사순절 특주

사순절 기간동안 이건명 집사님의 사순절 해금 특주가 매 주일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점심식사 섬김

3.24 - 유창호 집사 / 4.28 - 장천, 장현주 집사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실 때 함께 나누어주세요 ^^

길목교회 사역

- 18(월)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멘토사역 (이길주 목사)
- 19(화) - 기도모임 (권종신 사모) / 서울서북노회 남시찰회 참석 (이길주 목사)
- 21(목) - 장로회신학대학교 사역박람회 강의 (이길주 목사)
- 21(목) - 청년 성경공부 (권종신 사모) / 온라인 성경공부 (권종신 사모)
- 22(금) - 사모모임 (권종신 사모)

담임목사 튀르키예 성지순례 복귀

지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동안 침례교 경북 지방회 목회자분들을 인솔하여 튀르키예 성지순례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